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사단법인을 준비하며

김혜자 수녀  
한국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장



본 협회가 정부  
의 공식적 인  
정과 지원을 받기위해 임  
의 단체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 검토  
를 하였지만 호스피스 완  
화의료 관련법 제정이 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설립이 매우 어려웠  
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사업목적과 일정회원 확보,  
기본재산, 사무실 확보되어 있으면 사단법인 설립  
가능성이 있어 허가 절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올 1월 본 협회 운영진들과 “가칭 사단법인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발기인모임을 통해 하느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호스피스활동과  
정보의 교류를 법인의 첫 번째 목적으로 한 협회 정  
관을 마련하였고, 사단법인 신청에 있어 법인의 소  
재지와 사무실이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이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인의 성격 상 전국 지부를 총괄하고 이후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 사무실을 서울에 두고 보건복지  
부에 제가신청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으나 현실  
적으로 우리법인의 활동중심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대전에 협회의 소재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남다른  
호스피스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님의 허가로 병원 내 호스피스사무  
실을 사단법인 사무실로 무료 사용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지난 3월 임대차 계약  
공증을 거쳐 대전광역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담당자  
의 여러 사정으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을 기도로서 물리  
치고 성모성월인 5월 안에는 모든 서류가 이루어지  
길 성모님께 진심으로 간구 하였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운영진들의 인감도장과 인감 증  
명서를 포함한 미비 서류 추가 제출 후 6월 28일자  
로 “사단법인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설립 허가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과정 동안 성모님께 간구하던 순간들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법인설립이 있기까지 지켜  
주심에 “찬미예수님” “성모님 감사 합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호스피스교육과 피정 등의 바쁜 일정  
안에서 법인 등기 신청과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등  
의 절차를 거치게 된 후 우리 협회가 “사단법인 한  
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로 정식 인가되고 등록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본 협회가 창립 된지 15년 만에 환골 탈피하여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충실한 협회  
로 성장 발전하여 가길 주님께 우리 회원 모두가 기  
도드리고 성모님께 의탁하며 간구합니다.